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조기 상환기회 늘린 TRUE ELS 10863회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일까지 코스피 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863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18개월), 85%(24·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연 4.9%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추가 리자드 옵션에 따라 모든 기초자산이 설정 이후 6개월간 최초기준가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연 4.9%의 수익을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김민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5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리자드 쿠폰금리가 일반쿠폰금리보다 높은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5종을 모집한다. 청약기간은 9월 21일 오후 1시 30분까지다.

먼저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 금융투자 ELS 892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민호 기자

한화투자증권

싸이월드 뉴스 '큐' 콘텐츠 제휴

한화투자증권은 18일 개인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애플리케이션 '큐(QUE)'와 제휴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금융정보를 보다 많은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 발행되는 콘텐츠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큐리저널' 섹션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의 재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라이프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하겠다는 취지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회초년생, 일하는엄마, 청년창업자, 은퇴준비자 등 4개의 페르소나별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금융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이 페르소나와 연관성이 있도록 풀어나가고 있다. /김민호 기자

추석 앞두고 한산한 주식시장

G2 무역분쟁에 명절 이후도 '관망' 유력

美, 中에 10% 추가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4분기도 '종목 장세' 예상

추석명절을 앞둔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G2(미국·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오르는 '종목 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실적 증가세가 뚜렷한 상장사를 주목하고 조언했다.

◆ 끝나지 않은 G2 싸움

1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전일 대비 5.97포인트(0.26%) 상승한 2308.98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식시장도 눈치보기 장이 이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4일부터 10% 관세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상위 기업〉

종목	2017년 3분기		전년동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유니테스트	8	143	1733.2
신세계인터내셔널	9	128	130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	262	1104.1
위메이드	10	89	815.1
JYP Ent.	11	86	676.2
코스메카코리아	5	35	619.1
유진테크	6	30	374.4
카페24	15	52	248.5
웹젠	75	245	225.1
삼성SDI	602	1,903	216.3
NHN엔터테인먼트	55	160	189.4
코스맥스	50	142	182.7
에스엠	46	130	180.2
삼성전기	1,032	2,856	176.9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이상

(단위:억원,%)

/에프엔가이드

가량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정보기술(IT) 관련주와 소비재 관련주 등에서 대거 매도세가 나왔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4.25포인트(1.43%) 떨어진 7895.79에 장을 마감하면서 7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對)중 무역 의존도가 24.5%(2017년)로 높은 한국 역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1월까지 무역분쟁 이슈를 끌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그때까지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분양 관심 ↑... 9·13대책 반사이익 기대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등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 주목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투시도. /우미건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집중돼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에 포함된 지방 주택시장 대응 방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 분양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분양 시장 침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촉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등이 시행

지지구인만큼 투자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달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록에서 '문성레이크아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24~29층, 전용면적 74~138㎡, 975가구 규모다. 구미하이테크밸리진입도로(예정), 구포~생곡간대체우회도로(예정), 경부고속도로북구미 IC 신설(예정), 인노션 생태하천 조성사업, 들성생태공원 추가조성 계획 등 다수의 개발계획이 있다.

두산건설은 10월 광주 동구 계림동 193번지 일원에서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총 908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84㎡ 56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포스코건설과 계통건설은 오는 12월 대전 중구 목동 일원에서 '대전 목동3구역 재개발'을 공급한다. 단지는 9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채신희기자 csh9101@



KEB하나은행

급여·연금·주거래 등 맞춤형 상품 6종 선택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생애주기에 맞춘 직관적이고 심플한 구조의 전용상품 6종을 새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선보인 상품은 급여생활기 손님을 위한 '급여하나통장'과 '급여하나월복리적금', 노년·은퇴기 손님을 위한 '연금하나통장'과 '연금하나월복리적금', 비급여생활기 손님을 위한 '주거래하나통장'과 '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이다.

먼저 '급여·연금·주거래하나통장'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급여하나통장'은 만 35세 이하 급여이체 손님에게 100만원 한도까지 연 1.5%의 청년직장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금하나통장'은 연금이체 손님을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까지 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체실적에 따라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및 온라인 이체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함께 출시된 '급여·연금·주거래월복리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3개의 상품 중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김민호 기자 kmh@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위해 노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공사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보 신임사장 취임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위성백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취임했다.

위 신임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공사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면서 “개인적 역량 강화에 전직원 한 마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금융기관의 부실 유발 요인과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리스크를 포착·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치하게 발전시키는 등 부실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